

## 칼럼

임성옥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 찬란한 5월의 진정한 모습은

오! 찬란한 5월. 기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스승의 날도 있다. 또한 5월은 푸르름이 짙어가는 달이다. 봄의 글자락 이면서 여름의 초입이기도 하다. 그래서 춤지도 않지도 않다.

기운남의 풍요를 준비해 가는 시기다. 아래저래 아름답다. 장미향이 대지를 휘어잡는다.

하지만 5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시기, 질투, 모함, 갑질, 폭력, 실인 등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살벌하다. 추하니. 장미화가 향기를 피워 낼 힘조차 없다. 참으로 척박하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 함께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판단보

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른데도, 상대방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수 있는 데도 심한 경우에는 같은 곳이 깊어져 관계까지도 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편을 만들고 집단을 형성한다. 결국 각각의 아류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소대질하면서 싸우게 된다. 철천지원수처럼.

요즘의 한국사회 그 도가 지나친다. 혐오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마치 폭풍진야 같다.

그 형태도 갖가지다.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문화예술체육계 등은 물론 지역, 연령 등에 의해

서도 편가름이 심하다.

설령 어느 일방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적 현상은 그대로다. 그 내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축소해 가다보면 기정이라는 집단에서도 역시 미친가지다.

마르틴 뷔버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3가지로 전단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상기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대부분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를 '나와 너의 관계'로 전환 시켜야 비로소 한다. 부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민족과 대화라 했다.

어떤 만남이든 최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뺏어진다. 대화 또한 그 다툼을 전제해야 한다.

설령 다른 삶이나 어긋난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진지하다면 그 또한 이를다운 행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너를 자꾸 나와 같게 만들려는 생각. 갖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게 같으면 복제인간밖에 더 되겠는가. 물론 같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생각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흥미가 있고 수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다.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되어진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 안에 각종 생생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산에 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천천히 물적인 것은 그 어디에서도 활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태초에 조물주는 인간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들마음의 꽃들을 괴워주기 위해서.

기정의 달인 5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다. 어떤 이는 행복하고 다른 어떤 이는 슬픔을 수 있다. 행복한 이는 더 행복해지길 바라고 슬픈 이는 우리 모두가 다독여 주면 어떨까. 그것이 '나와 너'가 함께 행복해지는 진정한 5월이지 않을까.

## 社說

## 금연구역 확대 필요하다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했다.

다만,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했다.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서울시 3개 구 모든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암소당 13.5%(월평균 약 373만원) 늘었다.

당국은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나아졌지만,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 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미리 예방하자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는 5월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 다섯 가지를 선정해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재난유형으로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교통사고, 화재(산불), 여가활동사고, 농기계사고, 식중독 순으로 생활과 밀접한 사고들이다.

첫째, 교통사는 물론나들이, 소풍, 수학여행 및 각종 아외행사 등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짐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5년간 평균 10,258건으로 월평균 102,528건으로 월등히 높았

으며, 이중 법규위반의 가장 많았고, 자전거 안전운전주의, 열차·지하철 자살사고, 기타 졸음운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5월은 봄의 시작과 함께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는 계절로 일반화재는 물론 산불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일반화재는 연간 10만건, 5월평균 17,924건, 5월 평균 19,465건, 산불건수는 연간 208건, 5월평균 286건으로 모두 5월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셋째, 여가활동사는 어린이날 행사와 각종 축제, 기족행사 등으로 아외활동이 많아집과 동시에

사고발생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등산객이 급증해 안전수칙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사고 유형으로는 등산사고가 681건(75%)으로 가장 많고, 놀이시설사고가 64건(7%)으로 나타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넷째, 5월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영농기로 연중 농기계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다. 최근 5년간 농기계사고건수는 연간 10만건, 5월평균 10,58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도 지역별 통계에 의하면 경북(300건, 20.6%)과 경남(268건, 18.4%)에서 사고 발생건수가 높았고, 사고 당 사망자수는 경원도사고 53건, 사망 17명, 사망률 32%가 가장 높았다.

다섯째,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사고로 5월에 자주 발생한다. 주요 경로로는 오염된 물로 조리 기구나 채소 등을 세척하거나 상한 식자재의 사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칼?도마는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5월은 그 어느 달보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로 화재를 비롯해 교통사고, 여가활동사고, 농기계사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기정의 달이 되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영진 /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浮	漂	부	浮渭據涇
渭	水	位	▶吳: 水(渭水)에 뜨고 경수(涇水)를 놀렸으니, 장안(長安)은 서북(西北)에 위치(渭水), 경수(涇水), 두 물이 있음.
據	居	位	
涇	經	경	

등록번호 광주자 00021 (일간)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b>명예회장 이신원</b>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청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